

# 애완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과 대책

## II. 기생충성 질병에 관하여

### 강 영 배\*

#### 1. 인수공통전염병과 인수공통 기생충병의 정의와 구분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학문적 접근방법이나 연구목적 등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등의 척추동물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 있는 질병이나 감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zoonosis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행되는 Anthroozoonosis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이행되는 Zooanthroponosis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정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은 그 병인체의 종류에 따라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나 리케치아와 같은 미생물에 의한 것과 기생충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으며 기생충에 의한 것은 다시 연충류(蠕虫類) 즉, 선충이나 흡충 또는 조충의 감염에 의한 연충성 인수공통 기생충병(Helminthozoonosis)과 원충류(原虫類)의 감염에 의한 원충성 인수공통 기생충병(Protozoonosis)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은 병인체의 감염

모형이나 발육환에 따라 직접형 인수공통전염병(Direct zoonosis), 순환형 인수공통전염병(Cyclozoonosis), 전이형 인수공통전염병(Metazoonosis), 및 사물기생형 인수공통전염병(saprozoonosis)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편에서는 Helminthozoonosis와 Protozoonosis중에서 중요한 몇 종류를 대상으로하여 병인체와 전파모형, 공중위생학적 의의와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 주요 선충성 인수공통 기생충병

##### \* 개 회충증(犬回虫症)

병인체

*Toxocara spp*에 속하는 회충으로 개 회충(*Toxocara canis*)과 고양이 회충(*Toxocara cati*)이 병인체로 작용한다.

사람의 회충(*Ascaris lumbricoides*)과는 구별된다.

##### 전파 모형

개회충의 감염은 주로 모견의 태반을 통하여 선천적으로 감염되는 예가 많으며 통상 3개월 이내의 강아지에서는 80%이상의 감염률을 나타낸다.

\*가축위생연구소

성견이나 인체에의 감염은 함유충란에 의한 후천적 감염양상을 나타내는데 개의 분변을 통하여 배출된 충란은 습도와 산소공급이 적합하면 보통 2주 이내에 감염력을 가진 감염기 충란으로 변화되며 이러한 충란은 1년여의 기간동안 감염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감염문호는 경구적이며 장관 내에서 부화하여 체내이행을 거친다음 소화관 주로 작은창자에 정착하여 성충으로 성숙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사람에 있어서의 호발연령은 1세부터 3세까지의 유아이며 어린 연령층에서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는데 주요증상으로는 빈혈, 천식양 발작, 발열, 체중증가의 정지, 복통, 간종대, 이식증 등이며 때로는 뇌신경계에 침입하여 전간발작, 경련, 마비, 시신경장애 또는 실명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대 책

성충의 수명은 2개월부터 1년까지로 범위가 넓으며 자연배출 되거나 자기치유(self cure)되는 예도 많다.

회충의 구충제는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아지와외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며 정기적인 구충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을 취급하였거나 밖에서 흙을 만지게된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청결하게 씻도록 어린이들에게도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애완견 이외의 야견에 의한 토양오염의 위험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개 심장사상충증(犬心臟系狀虫症)

#### 병인체

개 심장사상충(*Dirofilaria immitis*)이 주요 병인체이며 그밖에도 *D.repens*, *D.spectans*, *D.tenuis*, *D.ursi* 등의 인체기생이 보고되어 있다.

#### 전파 모형

개 심장사상충은 성충기에 있어서 개의 우심실과 근접혈관 또는 폐혈관 등에 기생하는데 암수로 구별되며 유충인 마이크로 윌라리아를 산출하여 혈행중에 배출한다. 이러한 마이크로 윌라리아를 모기나 흡혈과 함께 섭취하여 다음번 흡혈시에 개 또는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며 개에 전파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성충으로 성숙되지만 사람에게 전파된 경우에는 미성숙충 시기에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인체에 있어서의 개 심장사상충 유충의 감염에 의한 증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폐증상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성숙충에 의한 폐경색 소견을 볼 수 있는데 주요증상으로는 흉통, 혈담, 호흡곤란, 발열, 실신 등이다.

둘째는 폐이외 장기에 기생하는 것으로 피하조직에서 한국성 육아종을 형성하는 것과 체강내에 기생하는 것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기생하는 것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33세의 여성으로부터 자궁절제수술 시행시에 복강내에서 미성숙충을 발견하였다는 보고(임, 1976)도 있다.

### 대 책

개에 있어서는 디에틸 카바마틴계열의 약제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나 중간숙주로 작용하는 모기의 박멸이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사람에 있어서는 생체에의 진단이 곤란하며 치료제의 사용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증상에 따른 외과적 수술처치가 이용되고 있다.

개집 주변에 있는 모기의 서식처를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살충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다. 방충망 설치도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 동양 안충증(東洋眼虫症)

#### 병인체

*Thelazia*에 속한 동양안충(*Thelazia callipaeda*)이 주요 병인체이며 미주지역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 안충(*Thelazia californiensis*)이 보고되어 있다.

#### 전파 모형

안충의 성충은 개를 위시하여 고양이, 토끼, 원숭이, 여우 등의 안결막 표면에 기생한다.

제3기 유충이 중간숙주인 파리에 의하여 전파된다. 주요 중간숙주는 *Amiota varigata*와 *A.magna*이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개에 있어서는 무증상으로 경과되는 예가 많으며 급성 또는 만성 결막염의 증상을 보인다. 중증인 경우에는 각막염과 안검염을 일으켜 결과적으로는 실명까지 초래하게 되는수도 있다.

인체에의 감염에 있어서는 심한 안통과 결막출혈, 안검부종, 시력장애, 소양감과 이물감, 만성 결막염 증후 등을 나타낸다.

#### 대 책

방산수로 세안하여 충체를 잡아내며 중간숙주를 구제하여 예방한다.

#### \* 악구충증(顎口虫症)

##### 병인체

유극악구충(*Gnathostoma spinigerum*)이 주요 병인체이며 그밖에 *G.hispidum*, *G.doloresi*, *G.nipponicum* 등이 보고되어 있다.

#### 전파 모형

제1 중간숙주는 물벼룩류(*Cyclops*)이며 제2 중간숙주는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 매우 다양하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개와 고양이 등이 고유숙주이며 사람은 중간숙

주 단계로 감염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통하여 종숙주에 전파되지는 않는다.

사람에의 감염은 제2 중간숙주인 물고기를 통한 감염이 많으며 최근에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가물치는 가장 중요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조사성적을 참고하여 보면 가물치중 약 80% 정도가 악구충 제3기 유충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생선횃집에서 값비싼 광어대신에 가물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격문제 뿐만 아니라 악구충이라는 기생충을 전파시킬수 있으므로 공중위생학적 중요성이 인정된다.

악구충증의 임상증상은 흔히 전구증상으로 상복부의 둔통, 구토, 설사 등이 있으며 체표에 기생하여 진행성 선상구진(피부파행증 *Creeping disease*), 기타 장기에서 혈담, 혈뇨, 실명, 전간양 발작 등을 나타낼 수 있다.

#### 대 책

외과적 적출외에는 큰 기대가 없으나 TBZ제열의 구충효과가 알려져 있다.

### 3. 주요 흡충성 인수공통 기생충병

#### \* 간흡충증(肝吸虫症)

##### 병인체

주요 병인체는 간흡충(*Clonorchis sinensis*)이며 그밖에 고양이 간흡충(*Opisthorchis felinus*), 타이 간흡충(*O. viverrini*) 등이 있다.

소나 양등 초식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질(肝蛭) *Fasciola hepatica*와는 다른 종류이다.

흔히 간디스토마라고 알려져 있다.

#### 전파 모형

제1 중간숙주는 왜우렁이이며 미라시디움단계로부터 스포로시스트, 레디아, 세르카디아의 단계까지 발육증식한다. 제2 중간숙주인 담수어(붕어 등 30여종) 체내에 침입하여 피낭유충(메타세

르카리아)으로 형성된 다음 고유숙주인 사람이나 보충숙주인 개, 고양이 등에 감염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본래의 고유숙주는 사람으로 특히 담수어를 생체로 먹는 일본, 중국, 한국등 아시아 국가에서 문제시 되는 질병이다.

인체에 있어서 가벼운 감염은 무증상으로 경과되지만 많은 증체가 기생하게된 경우에는 설사와 복부압박감, 팽만감, 황달 등을 나타낸다.

개와 고양이는 보충숙주로 작용하며 간흡충 전파의 중요한 오염원이다.

### 대 책

오염된 담수어를 생체로 먹는 습관은 위험하며 열탕에 15분이상 데치든지 영하 10도이하에서 5일이상 동결처리 하면 안전하다. 효과적인 구충제로는 프라지칸텔이 알려져 있다.

### \* 폐흡충증(肺吸虫症)

#### 병인체

흔히 페디스토마라고 알려진 폐흡충(*Paragonimus westermani*)이 주요 병인체이며 근래에 일본에 있어서 미야자키 폐흡충(*P. miyazakii*)이 보고되어 있다.

#### 전파 모형

제1 중간숙주는 담수산 다슬기이며 제2 중간숙주는 담수산의 개와 가재류이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폐흡충은 인체의 호흡기내에 기생하여 기침과 객담, 혈담, 발열, 호흡곤란, 흉통, 식욕감퇴증상을 보이며 각종장기에 이소기생하여 뇌척수성 폐흡충증 또는 복부 폐흡충증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개와 고양이 등은 공통숙주로서 본병의 역학 및 방역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 대 책

치료제로는 Bithionol제통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예방을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물론 애완동물에 대하여 집단검진과 집단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민물 개나 가재류를 먹은 때에는 완전히 조리한후 식용으로 하도록 하면된다.

### \* 극구흡충증(棘口吸虫症)

#### 병인체

*Echinostoma*속에 속하는 여러가지 극구흡충이 병인체로 작용한다. 즉, *Echinostoma ilocanum*, *E. revolutum*, *E. cinetorchis*, *E. macrochis*, *E. hortens*, *E. perfoliatus*, *E. japonicus*, *E. recurvatum* 등이다.

#### 전파 모형

극구흡충은 두종류의 중간숙주를 필요로 하는데 각각 여러가지의 물달팽이류가 관련되어 있다. 피낭유충이 경구적으로 감염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개와 고양이 쥐 기타 설치류를 중숙주로 하고 있으며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에서의 주요증상은 복통과 설사, 혈변 등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극구흡충의 종류에 따라 병원성과 증상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증상으로 내과되는 예도 많을수 있다.

### 대 책

극구흡충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치료약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나 몇가지 구충제가 시험적으로 사용될수 있다. 물달팽이류의 구제가 예방상 중요하다.

### \* 주혈흡충증(住血吸虫症)

#### 병인체

일본 주혈흡충(*Schistosoma japonicum*)이 주

요 병인체이며 그밖에 *S.haematobium*, *S.mansoni* 등이 알려져 있다.

### 전파 모형

사람을 위시하여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 그리고 각종 가축에 공통으로 기생하는 종류는 일본 주혈흡충이며 전파모형은 비교적 단순하여 중간숙주인 달팽이류(*Oncomelania* spp.)를 통하여 분열증식하며 세르카리아의 형태로 경피적으로 감염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구혈흡충이 인체에 감염되면 초기증상으로 세르카리아성 피부염(*Cercarica-dermatitis*)을 일으키게 되며 일주일 정도면 증상은 소실되지만 피부에 경결과 궤양이 생기며 기침과 두드러기, 식욕부진과 권태감, 복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급성기에 있어서는 적리에서와 유사한 증상 즉, 구토감과 발열, 점혈변 등을 나타내며 만성기에 있어서는 간과 비장이 종대되고, 출혈성 피양과 상복부의 통증, 전신권태감, 복부 팽만감, 설사와 식욕부진, 구토 등을 나타낸다. 후유증에서는 간 경변과 복수 등이 알려져 있다.

### 대 책

스티뷰날, 화시딘 등 몇가지 구충제가 소개되어 있으나 독성 등을 우려하여 사용상 주의를 요한다.

예방대책으로는 분변에 대한 위생처리, 중간숙주의 박멸, 오염지역에서의 급수원에 대한 청결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주요 조충성 인수공통 기생충병

### \* 만손 열두조충증(裂頭條虫症)

#### 병인체

만손 열두조충(*Diphyllobothrium erinacei*)이 병인체이며 유충기인 Sparganum이 인체에서 질

병을 일으킨다.

### 전파 모형

제1 중간숙주는 물벼룩류(Cylops)이며 이러한 제1 중간숙주가 담수중에 유충을 유리하게 되면 제2 중간숙주인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어류, 포유류 등을 거쳐 종숙주인 개나 고양이에 감염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사람은 제1 중간숙주와 제2 중간숙주로 부터 감염될 수 있으며 그 자신이 제2 중간숙주로도 작용한다.

인체에 있어서의 임상증상은 기생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피하조직에 기생된 경우에는 종양상의 조직용기를 볼 수 있으며 통상 무통인 것이 특징이다. 요도에 기생된 경우에는 배뇨 곤란, 혈뇨, 요의빈삭, 회음부 소양증, 요폐증 등을 나타내며 호흡기에 기생된 경우에는 기침, 객담, 객혈 등을 나타낸다. 그밖에 서경부, 복부, 안부 등에 기생하여 각각 기능장애와 통증을 나타낸다.

### 대 책

사람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는 담수어(민물고기)의 생식을 피할것이며 특히 뱀이나 개구리 등의 생식은 절대로 위험하므로 어떠한 목적으로든 먹지 않도록 해야한다.

체표에 기생된 경우에는 외과적인 적출수술 이외에는 효과적인 구충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 \* 광절열두조충증(廣節裂頭條虫症)

#### 병인체

주요 병인체는 광절열두조충(*Diphyllobothrium latum*)이며 여러가지의 열두 조충들이 보고되어 있다. 즉, *D.cordatum*, *D.dal liae*, *D.de ndriticum*, *D.facificum*, *D.ursi* 등이 있다.

## 전파 경로

제1 중간숙주는 물벼룩류(Cyclops)이며 제2 중간숙주는 해산어류이다.

종숙주는 사람 이외에도 개, 고양이, 여우 등이 보고되어 있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흔히 민물고기(담수어)는 간디스토마 때문에 위험하지만 해산어류는 안심하고 생선회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광절열두조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 중간숙주로 바닷고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종숙주인 사람이나 개, 고양이 등에서 보고된 예를 보면 총체길이는 통상 10미터 이상 최장 17미터까지 성숙한 것도 있으며 소화기 장애와 식욕 이상, 변비, 설사, 이명, 악성빈혈 등을 나타낸다.

## 대 책

광절열두조충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충제로는 아미노시딘, 아타브린, 비치오놀, 니클로사마이드(요메산) 등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구제대책은 어렵지 않다.

근본적인 감염예방대책으로는 해산어류를 생체로 섭취하는 것을 삼가 하여야 할 것이며 충분한 가열처리를 하든지 또는 영하 7도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완전히 동결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 \* 포충증(包虫症)

### 병인체

단포조충(*Echinococcus granulosus*)과 다포조충(*Echinococcus multilocularis*)이 주요 병인체이며 한개의 포충(hydatid)이 형성되어 일어나는 질병을 단방성 포충증(Unilocular echinococcosis)이라 부르며 여러개의 다포조충에 유래되는 질병을 다방성 포충증(Alveolar echinococcus)이라 부른다.

## 전파 모형

단포조충의 중간숙주는 사람을 포함하여 소, 양, 돼지, 낙타, 말, 원숭이 등이며 다포조충의 중간숙주는 사람을 포함하여 집쥐, 들쥐, 생쥐 등 주로 설치류이다.

두가지의 포조충의 종숙주는 개, 고양이 및 여우 등이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포충은 개, 고양이 등 종숙주에 있어서는 성충의 형태로서 주로 소장내에 기생하는데 실제 성충의 길이는 수 밀리미터로 매우 소형이다.

사람 기타 중간숙주에 있어서는 포조충의 유생기인 포충(hydatid) 형태로 기생하는데 근래에는 뉴질랜드에서 공중위생학적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방제사업을 전개한바 있다.

## 대 책

사람에 있어서의 치료대책으로는 외과적인 적출수술 이외에는 좋은 방도가 없으나 최근에 홀루벤다졸과 메벤다졸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감염예방을 위하여는 개나 고양이 등이 소나 양 기타 가축의 내장을 생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 고양이에 대한 집단검진, 집단구제가 효과적이다.

## \* 유선조충증(有線條虫症)

### 병인체

유선조충(*Mesocestoides lineatus*)이 주요 병인체이며 그밖에 *M. variabilis*도 알려져 있다.

## 전파 모형

제1 중간숙주는 물애류이며 제2 중간숙주는 새우류이다.

*Tetrathyridium*의 형태로서 경구감염 된다. 개와 고양이가 고유한 종숙주이지만 사람에도 기생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현재까지 인체에서 보고된 유선조충류의 기생에는 세계적으로 19건이 알려져 있다. 그중 13건이 일본에서의 보고이며 국내에서도 1건이 보고된 바 있다.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장 및 복부의 둔통과 팽만감, 설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오한과 발열도 보고되어 있다.

### 대 책

비치오놀 등의 구충제가 소개되어 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하여는 새우류를 생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조충증(犬條虫症)

#### 병인체

개조충(*Dipylidium caninum*)이 병인체이다.

#### 전파 모형

중간숙주는 개벼룩, 사람벼룩, 고양이 벼룩, 개이 등이며 의낭미충(*Cysticercoid*)의 형태로 경구감염 된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고유숙주는 개이지만 사람에도 공통적으로 기생된다.

인체의 기생예는 3개월 내지 8세미만의 어린이에서 다발한다.

무증상으로 경과되는 예가 많으나 성숙된 편절이 항문주위에 부착되어 소양증을 나타내며 안면부의 창백, 식욕부진, 복통, 연변, 설사, 권태감, 체중증가 정지, 빈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 책

비치오놀, 니클로사마이드(요메산) 등 조충 구충제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예방대책으로는 분변(개 및 사람의 분변)에 대한 위생적 처리가 중요하며 중간숙주인 벼룩류에 대한 살충제 살포에 의한 방제가 효과적이다.

## 5. 주요 원충성 인수공통 기생충병

### \* 톡소플라즈마병

#### 병인체

*Toxoplasma gondii*가 병인체이다.

콕시디아류에 속하는 포자충의 한 종류이며 고양이과의 동물을 종숙주로 선택한다.

사람을 포함한 각종 포유동물과 조류 등이 중간숙주 또는 보충숙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파 모형

톡소플라즈마 원충은 종숙주의 장관내에서 유성생식으로 분열증식하며 미성숙상태의 오시스트를 외계로 배출한다.

분변과 섞여 체외로 배출된 미성숙 오시스트는 외계의 온도의 영향을 받아 성숙하여 감염력을 가지며 중간숙주 또는 보충숙주로 작용하는 사람, 쥐, 돼지 등에 감염된다.

톡소플라즈마 원충의 전파모형상의 특징은 중간숙주인 쥐에서 쥐로의 감염전파가 가능하며 성숙된 오시스트는 중간숙주를 거치지 않고도 종숙주인 고양이에게 직접감염될 수도 있는 등 특별한 형태의 감염전파모형을 나타낸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사람에 있어서의 톡소플라즈마 감염은 동물 특히 고양이를 취급하는 수의사나 동물관리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식육 특히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높은 항체가 보고되고 있다.

사람에 있어서의 증상은 불현성 감염을 나타내는 예가 많으나 모체에 심하게 감염된 경우 임신 중에 태반감염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파되고 두개의 기형과 뇌의 손상을 나타내는 신생아의 선천

감염이 문제시 될 수 있다. 특히 선천감염에 의한 조산, 사산, 안병변, 운동기능장애, 수두증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므로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서양여성에게는 큰 걱정거리로 인정되고 있다.

후천적인 감염에 의하여도 발증되는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가축 특히 돼지에 있어서는 폐사되는 예도 많다.

## 대 책

톡소플라즈마 원충에 대한 치료약제로는 피리메타민과 설폰아미드, 스피라마이신 등이 소개되어 있다.

예방을 위하여는 고양이의 분변으로 인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며 쥐잡기 운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돼지를 도축할 때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적리(赤痢) 아메바증

### 병인체

적리 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가 주요 병인체이며 병원성도 상당히 높다. 대장 아메바와는 다른 종류이다.

### 전파 모형

적리아메바 원충의 숙주는 개, 고양이, 돼지, 원숭이, 토끼, 랫트 등이며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기생할 수 있다.

감염방법은 시스트의 경구적 감염이다. 중간숙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감염이 성립되므로 전파가 용이하며 세계적인 감염분포를 보이고 있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인체에의 주요기생부위는 대장이지만 소장에도 기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은 되어 있어도 무증상으로

경과되는 예가 많다.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장에 기생하여 발열, 설사, 혈변, 복통, 구토 등을 나타내는 장아메바증과 장아메바증의 2차 병변으로 나타나는 혈행성 전이에 의한 뇌, 간, 폐 등 주요 기관에서의 농양형성을 나타내어 사망률이 높은 장외 아메바증으로 구분된다.

인체 감염에 있어서 적리아메바와 대장아메바는 서로 다른 종류이므로 진단상 감별이 중요하며 적리아메바의 병원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대 책

아메바증 치료를 위하여는 카바미딘, 디오도린, 염산에메틴, 메트로니다졸 등으로 조기에 손을 쓰면 효과로 볼 수 있다.

예방대책으로는 저항성이 강한 낭자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음수는 반드시 끓여 먹도록 하여야 한다.

## \* 주육포자충증(住肉孢子虫症)

### 병인체

*Sarcocystis*속에 속한 여러가지 종류가 병인체로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종류로는 *Sarcocystis cruzi*와 *S.miescheriana*이다. 이 종류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사람에게 중요한 종류로는 *S.bovihominis*와 *S.suihominis*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다.

### 전파 모형

*Sarcocystis cruzi*는 소를 중간숙주로 하여 소의 근육내에 기생하며 *S.miescheriana*는 돼지를 중간숙주로 하여 돼지의 근육내에 기생하는데 각각 종숙주로는 개를 선택한다.

한편 *S.bovihominis*는 소를 중간숙주로 하며 *S.suihominis*는 돼지를 중간숙주로 하는데 종숙주는 모두 사람이다.



## 공중위생학적 의의

주육포자충의 공중위생학적 의의는 식육위생과 관련하여 식육을 통하여 주육포자충이 사람에게 전파될수 있다는 중요성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애원동물(개나 고양이)을 종숙주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공통 기생충성 질병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각 종류별로 숙주 특이성(host specificity)이 높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등 애원동물과 사람에게 기생하는 종류가 공통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된다.

## 대 책

주육포자충에 효과적으로 듣는 약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나 몇가지 항원충성제제가 시험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방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 6. 인수공통 기생충병의 대책(안)

애원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개생충성 질병중에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기생하는 문제성 질병이 많음은 사실이며 앞에서 주요한 몇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고찰하여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수공통 기생충병에 대한 종합대책을 의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수공통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와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장에서 얻어진 역학적인 조사자료는 거의 없으며 단편적

인 경험이나 참고문헌에 의한 학습내용에 국한된 것이 많다. 이 방면에 대한 기초연구와 보다 상세한 역학적 조사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수의사라는 직업은 동물을 취급, 관리, 보호하는 직업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인수공통 전염병 및 기생충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받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감시와 보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수의사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면 대부분 법정전염병에만 감시와 보고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인수공통전염병과 기생충병에 대하여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의사의 자체 감시기능을 강력히 권장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수의업무 기능에 대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수의사의 업무기능은 다만 환축을 진료하거나 폐사축을 검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며 식품위생, 환경위생, 유통관리, 어류질병, 야생동물관리, 실험동물관리 등 고유한 업무기능은 물론 위생 및 방역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부대적인 기능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